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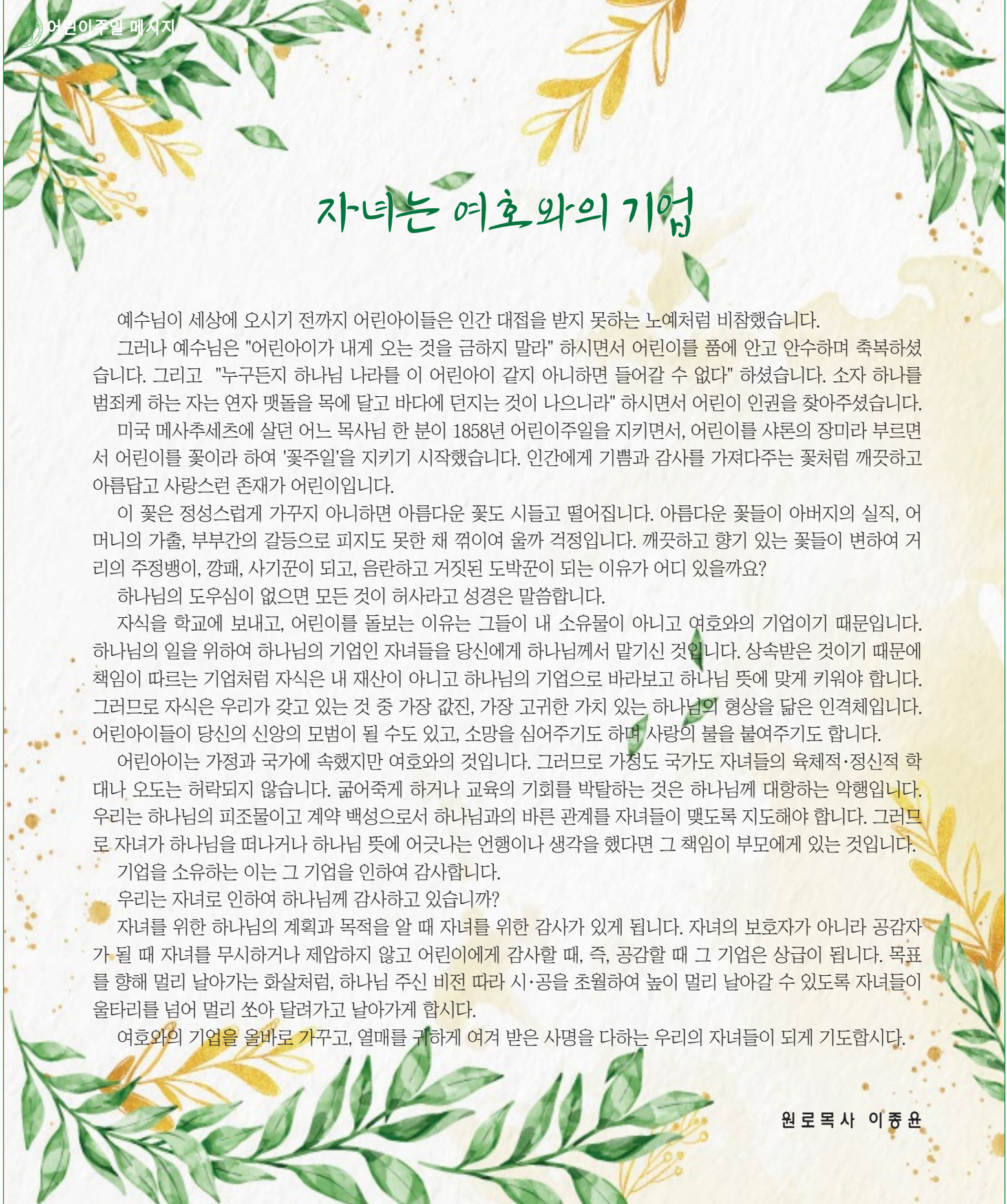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어린이주일 메시지

##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어린아이들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노예처럼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어린이를 품에 안고 안수하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소자 하나를 범죄케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시면서 어린이 인권을 찾아주셨습니다.

미국 메사추세츠에 살던 어느 목사님 한 분이 1858년 어린이주일을 지키면서, 어린이를 사론의 장미라 부르면서 어린이를 꽃이라 하여 '꽃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에게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주는 꽃처럼 깨끗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런 존재가 어린이입니다.

이 꽃은 정성스럽게 가꾸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꽃도 시들고 떨어집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아버지의 실직, 어머니의 가출, 부부간의 갈등으로 피지도 못한 채 꺾이여 울까 걱정입니다. 깨끗하고 향기 있는 꽃들이 변하여 거리의 주정뱅이, 강패, 사기꾼이 되고, 음란하고 거짓된 도박꾼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어린이를 돌보는 이유는 그들이 내 소유물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는 기업처럼 자식은 내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맞게 키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값진, 가장 고귀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당신의 신앙의 모범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을 심어주기도 하며 사랑의 불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는 가정과 국가에 속했지만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국가도 자녀들의 육체적·정신적 학대나 오도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굶어죽게 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계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자녀들이 맺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언행이나 생각을 했다면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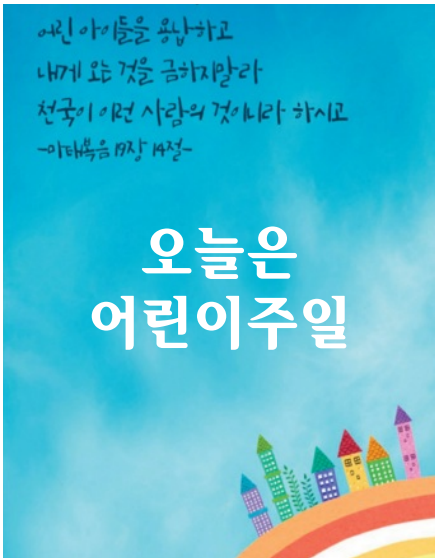
기업을 소유하는 이는 그 기업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때 자녀를 위한 감사가 있게 됩니다. 자녀의 보호자가 아니라 공감자가 될 때 자녀를 무시하거나 제압하지 않고 어린이에게 감사할 때, 즉, 공감할 때 그 기업은 상급이 됩니다. 목표를 향해 멀리 날아가는 화살처럼, 하나님 주신 비전 따라 시·공을 초월하여 높이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이 울타리를 넘어 멀리 쏘아 달려가고 날아가게 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올바르게 가꾸고, 열매를 귀하게 여겨 받은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기도합니다.

원로목사 이종윤



## 교회 현장예배 진행 중·고등부 : 9시, 웨민홀 유·초등부 : 11시 20분, 웨민홀

오늘은 어린이주일로 지키며 귀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랫동안 코로나19 사태로 교회 현장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나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아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교회 현장예배로 모인다. 중·고등부는 9시 웨민홀에서, 유·초등부는 11시 20분 웨민홀에서 현장예배를 드린다.

모든 성도들이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기를 바라며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한다.



## 교적 사진 제출

5월 11일(화)까지 / 교적 담당 이준태 집사에게

교회는 5월 23일(주) 향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교인들의 교적 사진을 교체하려고 한다.

현재 교적에 있는 사진들 중에는 오래 전에 찍은 사진들이 많아서 현재의 모습과 다른 사진들이 많이 있고 교적에 사진이 없는 성도들

도 많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진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등록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최근에 찍은 사진 파일이나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교구와 본인의 이름과 함께 교적 담당 이준태 집사(010-8615-4299)에게 5월 11일(화)까지 보내주기 바란다.

## 향존직 선거

5월 23일(주) 찬양예배 후 : 집사 80명 · 권사 100명

서울교회 운영규정 제5조 3항(2012년 12월 26일 개정)에 의거하여 제15대 집사 및 제14대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5월 23일(주) 찬양예배 후 실시한다.

집사의 자격은 만 35세 이상 된 남자로서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 이상 경과한 서리집사 및 협동집사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서리집사로서 3년 이상 봉사한 자이어야 하며, 디모데전서 3:8-13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덕이 있고, 봉사에 모범된 자로서 주일 찬양예배 및 수요일 예배 참석에 힘쓰는 자이어야 한다.

권사의 자격은 50세 이상 된 여자로서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 이상 경과한 서리집사 및

협동권사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서리집사로서 3년 이상 봉사한 자이어야 하며, 디모데전서 3:3-1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덕이 있고, 심방과 봉사에 모범된 자로서 주일 찬양예배 및 수요일 예배 참석에 힘쓰는 자이어야 한다.

본 교회의 18세 이상 등록된 세례교인(세례, 입교, 개종)은 누구나 공동의회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서울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협력하기 바란다. 모든 절차들이 은혜 안에서 선거가 진행 되도록, 주님이 준비하신 일꾼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자.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 제목

1. 모든 송사 건이 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정결한 가운데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도록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 사랑하는 서울교회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념으로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목사를 하나님이 찾아 보내 주옵소서
3.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타나게 하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순적하게 진행되어 거룩하고 화평한 서울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4. 청빙위원들에게 성령충만과 분별력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5. 청빙 받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섬기던 사역지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도와 격려로 후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 눈물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장상국 집사  
(분쟁백서 발간팀장)

“집사님 다치면 안돼!”  
“나도 집사님 따라 올라가고 싶지만 자꾸 눈물이 나서 차마 못 올라가겠어”

“정말 다치면 안돼!”라고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던 권사님, 말없이

다가와 두 손을 잡으시며 고맙다고 하시는 집사님. 그렇게 교회 분쟁 후 지난 몇 년의 모습은 출애굽 시대의 정복 전쟁 마냥 치열하고 간절하게 보내왔습니다.

기쁨과 예배의 설렘으로 시작했고 온종일 찬양이 넘치고 곳곳에서 어른들은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우고 아이들은 마냥 즐겁게 뛰어놀던 주일이, 그리고 교회가, 두려움과 온갖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었던 지난 몇 년 동안의 일들이 다시 한번 스쳐갑니다.

그래도 환란 중에 기쁨이 있었고 나눔이 넘쳤습니다. 비좁던 1층에서 힘들어도 웃으며 서

로 격려하고 하나가 되었던 그때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환란과 고난으로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교회가 하나하나 예전의 모습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일들을 통해 우리는 지난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 교회의 분쟁이 시작이 되었고 분쟁 중에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 20년사 이후에 벌어진 그간의 10년의 일들을 백서로, 영상으로 만들어 남김으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분쟁백서로 이름하여 제작을 하지만 이 백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분쟁 예방 백서가 되어 다시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나 혹여나 만약 발생이 된다면 '그

때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였다' 라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쟁백서는 3가지 관점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사실 중심의 백서, 2. 분쟁 예방적 차원의 해석, 3. 교회법과 사회법으로 보는 분쟁

또한 "분쟁 중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서울교회!"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체험수기도 공모할 예정입니다.

매일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던 권사님, 말없이 성도들이 식사한 잔반을 처리하고 설거지하시던 집사님, 온갖 힘든 상황에도 묵묵히 온몸으로 감당하신 장로님... 이 루 말로 표현 못 할 우리 모두의 사랑하는 서울교회를 지키기 위한 눈물의 역사를 이제 백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초등부 연합예배를 끝마치며

2017년 2월 5일(주일), 교육부서 교역자들이 모두 사임한 상태에서 유·초등부 연합으로 첫 예배를 드렸고 4년 3개월이 지난 2021년 5월 2일 올해 첫 대면 예배 겸 어린이 주일을 끝으로 마지막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2017.2.5 (102호)유·초등부 첫 연합 예배

처음 102호에서 시작해 701호로 옮겼고, 다시 102호로 쫓겨났다가 교회가 회복되어 701호로 돌아가는 듯했으나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1층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교회에서 허락한 각 부서 공간으로 되돌아가길 일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연합예배라고 생각하니 여러 가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2017년 첫해는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교회 분쟁의 상황은 어린이들과 청년들도 피해가지 못했고,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종박이나 비박이나를 가지고 싸움이 났고, 부모님들의 지지 성향으로 잘 나오던 청년 선생님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교회 출입구를 막고 시위하는 사람들로 인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해 예배는 파행을 거듭하였던 그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

으로도 감사했던 해였습니다.



2017.6.4 (701호) 교회 출입구 봉쇄 동안 예배 모습

2018년 박미라 전도사님을 모시고 예배가 점점 안정되는구나 생각했으나 얼마 못가 102호로 쫓겨나게 되었고 0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와 선생님들 150여 명이 한 장소에서 하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치 전쟁터의 천막 교회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4인용 식탁 하나에 10명이 넘는 어린이가 모여 공과 공부를 했고 시간과 공간 부족으로 3부 순서는 돌성경 앞, 한티 공원, 교회 앞 텐트를 이용했으며 돌성경 앞 행사 중 몰려온 용역들로 인해 행사 취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2018.5.13 4인용 책상에 2개 반 11명이 모여 공부하는 모습

이러한 환경이 오히려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떠났던 선생님들이 소식을 듣고 다시 되돌아오고, 찬양대 지휘자가 없어 고민하던 중 우연히 길 가던 유수진 선생님을 만나 연합찬양대 지휘를 부탁하게 되었고, 모든 행사를 아무런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후원의 손길 역시 끊임없었습니다. 씨를 심고 물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키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102호의 좁은 공간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을 고대하게 만들까 고민했었습니다.



2018.7.29 물총놀이. 용역은 물러가라!!!



2018.10.28 (한티공원) 유·초등부 3부 행사 단골 장소

교회만 오면 배가 고프다는 말에, 매 주일 연합찬양대 연습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간식을 준비했었고,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대접을 했습니다.



2019.03.24 (교회 앞 텐트) 매주 간식으로 섬긴 손길들



2020.11.08 (본당) 성경암송 발표

좁은 공간에서 공부해야만 하기에 혹시 그 나이에 맞는 교회 교육을 못 받을까 걱정이 되어 매주 설교 말씀 퀴즈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준비한 선생님들이 모두 깜짝 놀랄 정도로, 어린이들은 성경 퀴즈에 집중했고 하나라도 더 풀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했습니다.

예배 참석하고 설교 시간에 집중하고, 찬양대 연습에 참여하고, 남을 섬기는 행동으로 달란트를 모아서 1년에 두 번 빠짐없이 달란트 잔치를 했습니다. 공간 문제로 텐트에서 진행되었지만 7층의 넓은 공간에서 할 때보다 더 풍족하고 재미있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직접 체험하고, 온라인 물을 뒤지며 양질의 물건과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달란트 잔치는 비대면 기간에도 드라이브 쓰루로 빠짐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와서 교회 분쟁과 좁은 공간보다 더 힘든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 좁은 공간이 의미가 없었고, 모이지 못하니 돌성경과 교회 텐트 그리고 한티 공원도 갈수 없었으며 아가페타운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우리에게

계 지혜와 힘을 주셔서 "유·초등부 서프라이즈 프로젝트" 를 기획하게 하였고, 1탄, 어린이날 교사들이 직접 방문하여 "사랑의 택배" 를 전달하고, 2탄, 교사들의 사랑을 담은 온라인 찬양 동영상 전달하고, 3탄, 드라이브 쓰루로 달란트 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성경암송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17명의 어린이와 16명의 교사가 참여하였고 성경 통독 프로젝트를 통해 2명이 2독, 7명이 1독, 14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4년 3개월. 힘들거나 어렵거나 슬프다는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씨를 심고 물을 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매주 눈물로 감사하며 서로 기쁨을 나눴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것은 있지만 하기 싫거나 게을러서 하지 못한 것은 없을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던 시간이었습니.

이제 유·초등부 연합 예배의 시간을 마칩니다. 교사도 부족하고 어린이들도 많지 않고 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걱정되지만, 4년 3개월 동안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

하며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유년부와 초등부에 계획한 것을 기대하며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선생님, 믿고 끝까지 보내주신 부모님,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우리 어린이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7~2021년 유·초등부 연합예배 섬김 위원〉

교역자 : 박미라(2018-2021)

최근영(2017) 장석남(2017) (총 3명)

교사 : 곽태수 김동욱 김동현 김민아 김민정 김범수 김보영 김연화 김혜연 남재은 노애리 박미숙 박미혜 박은영 박현조 손영희 송미령 신경미 오윤걸 유수진 윤분남 이진희 이수경 이수정 이종범 임규연 임미경 임채연 장소영 장윤기 정아영 조영제 조혜영 최의진 최희연 하상영 한가형 한동민 한동현 홍혜란 (40명)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5월 6일(목) 여호수아회 조찬기도회에서 신임 임원단 감사예배에서 성경강해를 한다.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5월3일	월	대상 9-11		겔 24-31	
5월4일	화	대상 12-14		겔 32-36	
5월5일	수	대상 15-17		겔 37-42	
5월6일	목	대상 18-22		겔 43-48	
5월7일	금	대상 23-25		단 1-5	
5월8일	토	대상 26-29		단 6-12	
5월9일	주일	대하 1-5		호 1-14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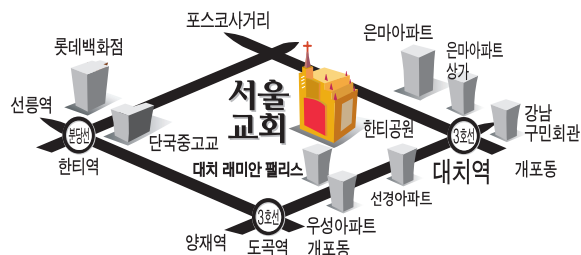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의 목회를 신실하게 감당할 담임목사를 찾아 보내주시어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에게 풍성한 꿀을 먹일 수 있게 하옵소서.
2. 5월 23일(주) 실시되는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3.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안전하게 공급되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지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